

광주 노사민정협 “GGM 노사 상생협정서 준수”

경영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제시

노조에는 “35만대 달성까지 파업 유보”

광주시엔 “주거지원비 현실적 수준 상향”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협의회를 열고 GGM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고 노조와 경영진에 권고했다.

조정·중재안에는 노사민정 대타

협 GGM 설립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노사문화 개선 방안 내용을 담았다.

경영진에는 노조·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4시간→8시간), 공급물량 확대(20대 도입) 및 신규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제안했다.

노조에는 35만대 생산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노사상생협의회의 역할 존중, 35만대 생산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제안했다.

광주시에는 공동복지프로그램 적극 이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으로 실질적 복지 확대, 물가 및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지원비 현실적 수준 지원,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조정·중재안을 확정된 뒤 GGM 노사와 광주시에 전달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임태호 조정·중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중재안은 상생·화합·미래지향의 3대 원칙

하에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 세계속 GGM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의 정신을 담았다”며 “GGM의 밝은 미래를 위해 조정·중재안을 노사가 적극 수용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GGM 노조는 전임 사무실 마련과 급여 7%(15만9200원) 인상·호봉제 도입·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월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폭풍전야인 자동차 업계와 1대 주주인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광주시는 중재안을 받아들인다. GGM 경영진과 노조 모두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다시한 번 상생의 힘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성장 느린 영유아 조기 발견 맞춤형 지원”

광주시, 영유아 발달 컨설팅 지원사업

광주시가 성장발달이 느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성장발달이 느리거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 3세 아동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참여하는 ‘발달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심화검사를 진행하며 이들에게는 선별검사비(2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또 심화검사에서 발달 지연 또는 경계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서비

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모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발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진행한다.

개별 부모상담, 교수학습 상담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아동의 발달 상태를 관찰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후속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광주시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영유아발달지원 전문요원을 채용해 사전교육, 발달검사 결과 상담, 치료기관 연계, 코칭·심리상담 등을 전담, 원스톱 서비스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전문상담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아동과 보호자의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조선주 기자

“인공지능·방위산업 접목

광주형 방산 생태계 구축 필요”

광주시가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특화 산업과 방위산업을 연계한 ‘광주형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시청 세미나실에서 이상갑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과 광주테크노파크, 지역 방산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포럼은 광주지역의 첨단 기술역량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군수산업을 넘어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방산’은 2023년 약 20조원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올리는 등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장기웅 광주TP 지역산업기획팀장은 ‘광주시 방위산업 육성 정책’ 발표를 통해 “지역 대표산업의 확장성과 기업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 광융합, 메디헬스케어, 인공지능을 방위산업 유망 분야로 육성해야 된다”며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군용 캐빈, 군용 적재함 등을 생산하는 기아 군수협력사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예방’ 수거 작업

2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한 마을 입구에서 북구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수거업체와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2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한 마을 입구에서 북구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수거업체와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북구 제공

김영록 지사 “목포·신안 행정공백 최소화해야”

1년 남짓 권한대행 체제 불가피…행·재정 지원 강화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대법원 판결로 각각 당선이 무효되고 직무가 정지돼 차기 지방선거까지 1년 남짓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전남도가 시·군정 안정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목포시·신안군 주요 현안 간담회를 열어 두 지자체의 행정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사업, 향토음식진흥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20여일 남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분야별 업무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흑산도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도비 보조 5억 원을 건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여객선·도선공영제 운영, 문화예술의 섬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김 지사는 두 권한대행에게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단체장 결위로 지역 공직사회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공직자들이 중요하지 않고 분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안정적 공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 “유례 없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국”이라며 “전남도도 긴밀히 협력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호 기자

광주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 ‘3-YES’ 구축

예측·예비·예방…산업현장 사망사고 제로화 10억 투입

광주시가 위험도가 높은 산업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재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산업현장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안전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취약부문 지원과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시는 안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광주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실전추진단 등 유관기관과 산업재해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

책 자료, 사업자·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개선 활동도 실시한다.

또 지역 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과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시는 취약부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단 6명을 운영해 공공·민간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추락 등 건설현장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지도·계도활동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유해 위험요인 발굴·예방을 위해 광주시 전용업 ‘안전나침반’을 활용, 스마트 안전관리도 진행한다.

/김도기 기자

남도장터,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전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뉴욕페스티벌(New York Festivals) 대한민국-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농특산 소품물 부문 대상(최고상)을 수상했다.

전남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 노력이 두루 인정됐다.

세계 3대 국제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대표성, 만족도, 충성도, 글

로벌 경쟁력 등의 항목을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하고,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CI)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시상식이다.

남도장터는 2022년 12월 전남도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 2년 만에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공공형 종합유통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선순환 유통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호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